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계13:1~10)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짐승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적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표명하는 분들의 글을 읽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교회나 신앙인들에 대해서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자들을 주로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클래식할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은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1절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 중에서 이 말씀이 바로 로마 황제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세대 황제 말고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주후 4년에 그가 즉위해서 황제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 있을 당시에 계시록의 내용을 계시 받을 때까지에 있었던 도미티아누

스 황제까지가 열 황제인데, 그 중에서 네로가 68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68년 이후부터 18개월 동안 별 볼일 없는 세 황제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즉위하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황제를 빼놓고 제대로 된 황제다운 황제 역할을 한 것이 일곱 황제이니까 일곱 머리이고, 이 별 볼일 없는 황제까지 끼워서 열 황제이다. 주후 4년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노릇이 끝났던 96년까지. 열 명의 황제 중에 세 명을 뺀 일곱 명이 일곱 머리이고, 전체를 다하면 열 명이니까 열 뿔이다. 이러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로마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둘째 짐승의 666과 연관 지어서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냐는 것이.

심지어는 마르틴 루터나 쯔빙글리 같은 분들도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로 보이고,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벨기에에 있던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 국제기구에서 처음 컴퓨터의 초기모델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지 않을 때 컴퓨터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과 경이로운 감정이 주어지고 있을 그 때에, 그 슈퍼컴퓨터가 인류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유럽 공동체가 초기에 몇몇 나라 안 될 때에 이것이 열 뿔과 일곱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냐고 했어요. 지금은 유럽공동체에 속한 나라가 많아졌지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의 경우에서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써 가시는 동안, 그게 90~95년이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때에 사도 요한이 사실은 일곱 황제를 어렸을 때부터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요한서신에서 다섯 번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단 한 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적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의 모든 적그리스도에 대한 용어 사용들은 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을 해치는 자들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황제나 히틀러나 이런 존재들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자격미달인 자들입니다.
“열 뿔”은 권세와 힘을 말하고, “일곱 머리”는 지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 노릇을 하고 사탄의 대행자로서 노릇을 하는 짐승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완벽하게 주어진 힘과 지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황제들이라든지 히틀러 같은 자들은 수준미달이에요. 이들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먹

힌 자들이었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희생자들입니다.
왜 히틀러가 그 모양이 됐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희생자죠. 네로가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희생자이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탄인 붉은 용과 일체가 되는 자예요.
붉은 용도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다고 하고, 이 짐승도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다고 했어요. 일체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이나 히틀러는 아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는 것처럼 교회를 잔멸(殘滅)했다고 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교회가 성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회개해서 기독교를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자들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 속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에 거기서 적그리스도적인 속성이 발견되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속성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특징이 도대체 뭐냐?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어떤 속성과 어떤 성향을 띄는 자들이고, 무엇을 목적하는 자들이냐? 무엇을 목적하는 존재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키워드가 본문에 제시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찾아보세요. 오늘 1~10절까지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가 뭐 같습니까?
그게 엉뚱하게도 “바다”라는 겁니다.
이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지고 바다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 첫째 짐승으로 이야기되는 적그리스도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바다 전문가가 첫째 짐승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다가 왜? 동해바다, 황해바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다 바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징적, 비유적으로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서 사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바다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은 다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인간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빠지게 됩니다.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을 때에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심, 걱정, 미움, 증오, 불평, 원망 이게 다 기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된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수면 위를 밟으면서 살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는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마음은 바다의 수면 위를 떠서 살도록 만들어놓은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어떨 때 기쁩니까? 마음이 뜰 때, 마음이 가벼울 때.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바다 수면 위에서 발을 딛고 있는데도 너무 가벼워서 가라앉지를 않을 때 그 때 기쁨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덴의 위치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디쯤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 어디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말이 아니고, 진짜 에덴의 위치는 바다 수면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왜 가라앉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바다로 지어진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에, 바다로 지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빠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라앉습니다.
왜 그런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려면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내가 자식들을 기르는데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직장을 가느냐? 저 직장을 가느냐?'
판단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필요한데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판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람(루아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바람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바람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바람 들어간 비치볼이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고 내가 판단하면서 물 위에 떠 있던 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무대 위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수면 위에 있는 피조물들을 붙잡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물 위에 사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사업을 마음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걱정, 근심, 분노, 원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괴로운 사람을 거기서 풀어주려면 사업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게 해서 뜨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괴롭고 고민하는 것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이므로 뜨게 해서 기쁨을 주려면 자식 문제에 대한 충고를 할 것이 아니고, 사업 문제에 대해 충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게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그것을 놓게 되고, 놓게 되면서 뜨게 됩니다. 뜨게 되면 바로 수면 위가 하늘이에요. 수면과 하늘이 닿아 있습니다.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 바람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서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면 위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바다 속에 가라앉아서 붙잡고 고민하고 괴롭고 모든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다 사라진 상

태에서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은 어디로 갔어요? 수면 위에 같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면 위에 떠오른 내 인생의 영역들 사업, 자식, 부부관계, 직장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판단의 주체이신 바람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바람이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수면 위에 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뜻을 따라 역사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 수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의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다 수면 위가 바로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가능한 바다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열 뿔의 완벽한 힘과 일곱 머리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다 수면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멀~~리, 아래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깊이, 깊이 가라앉게 만드는 겁니다.
깊~이, 깊~~이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일곱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 모독을 위해서 일곱 머리의 지혜와 열 뿔의 권세와 힘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로마 황제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히틀러가 내가 독일 민족을 구원해서 독일 민족을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세울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의 저명한 신학자들조차도.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6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을 일시에 해결을 해버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제들이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은, 일곱 머리가 동원되어야 하는 지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무지하고 무식한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일곱 머리가 달린 지혜가 출중한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지와 교만의 소산이지 적그리스도의 교활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도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았지만 무지한 무식쟁이지, 이들은 적그리스도 수준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히틀러가, 황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말로 괴로운 일이지만 죽이면 죽어야죠.
오늘 말씀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에 죽게 되면 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하지만 대~단하지는 않죠.

그러면 신성 모독이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바다 수면 같은 곳에 세상을 만들고 에덴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너! 바다 수면 위에 떠 있어라. 그러려면 선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고, 네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나의 판단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나와 나의 아들 예수가 영원 전부터 누리던 기쁨,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충만함을 갖게 되는 이 기쁨 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고 사랑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은 이 하나님의 의도에 대고 모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면 위에 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비즈니스 성공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독을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수면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바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면서 바다 속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신성 모독이에요.

그럼 바다 속의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돈이 천만 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옆에 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돈 천만 원이 없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수면 위에 떠서 기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돈 천만 원 붙들고 가라앉아서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에 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온 지구를 다 팔면 얼마가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태양과 달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태양 값이 얼마고 달 값이 얼마겠습니까? 그 우주 전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옆에 와서 나를 가지라고 하는데, 돈 천만 원이 없다고 걱정하며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리고 걱정과 근심에 싸여버립니다. 하나님을 갖고 기쁠 생각을 하지 않고 돈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돈 생기면 기뻐합니다. 이게 바다 속의 삶이고 이보다 더 큰 신성 모독은 없다는 거예요.
명품 백 없다고 남편과 싸웁니다. 하나님을 명품 백 들듯이 내 것으로 갖고 동행하라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명품백도 하나 못 들고 지금 동창회 가겠습니까? 여보, 이게 꼬락서니가 뭐야? 사는 게."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자식이 뭐 좀 안 된다고 괴로움과 근심에 싸여버립니다.
이 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곱 머리의 지혜와 열 뿔의 힘을 가지고 신성 모독을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인간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명품 백보다 못한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겠다는데도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품 백보다 못한 것이죠. 자식의 성공보다 못한 것이고, 취직보다 못한 것이고, 승진보다 못한 것이고, 건강보다 못한 것이고…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사랑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독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 뿔과 일곱 머리를 사용해서 인간을 바다 밑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하게 이 짐승이 붉은 용 사탄의 대행자로서 사탄의 뜻과 능력과 모든 것이 일치하는 자인데, 이 세상에서 보이고 이 세상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예요.
그 짐승의 역사가 확인될 수 있는 자로 나옵니다. 용은 잘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자로서 이 세상에서 확인이 되는 자인데,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나았다고 해요. 그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래서 짐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라는 이야기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모순이 되는가 하면, 4절에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처가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짐승,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갖고 있는 이 짐승을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가 일곱인데 손자병법에 통달한 사람이라고 해서 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상처를 입었다는 걸까요? 나중에 또 나와요.
오직 한 분만이 이 짐승과 붉은 용에 대해서 이길 분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이라는 개인에게 국한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공중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공중 지배를 하고 있는 사탄과 목숨을 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붉은 용과 미가엘이 1:1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미가엘도 자기의 부하 사자들을 끌고 왔고, 붉은 용도 자기 부하 사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은, 이 붉은 용이 앞장 선 미가엘과의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십자가에서의 싸움이었죠. 이 싸움에 참여를 했던 자이고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가장 앞장 선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짐승이 목숨을 걸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수면 위의 하늘과 인간의 마음이 맞닿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맹렬하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온 땅의 사람들이 이 짐승을 경배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경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다 수면의 삶을 살지 못하고, 바다 속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앉았으니까 모든 사람의 삶이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만과 증오의 삶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을 경배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경배한다는 것인데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수면 위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위쪽을 향하지 않고, 아래쪽을 향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래쪽을 향하는데 깊으면 깊을수록 좋은 거예요.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마음에 향하는 시선이 깊으면 깊을수록 경배의 정도가 커지는 겁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온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로 믿지 않았는데 부자가 된 사람

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밖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원불교 교인인데 엄청난 재벌이 됐다. 요즘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명한 '알리바바'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 IT업체가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2,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서 구글 다음의 IT 업체로 일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창업주가 '마윈'이라는 사람이라는데 전 세계의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비즈니스에 성공한 마윈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마윈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서, 알리바바라는 사업체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업체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수면 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누가 그의 일을 되도록 밀었을까요? 열 뿔의 힘과 권세, 일곱 머리의 지혜를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역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사업체가 됐어요. 그 사업체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붙들고 있는 마음은 깊게, 깊게 가라앉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큰 것을 갖게 되어서 저 밑으로, 밑으로 가라앉는 그 사람을 온 세상이 부러워합니다.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이게 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등지고 바다 깊이, 깊이를 내려다보면서 부러워하는 이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바다 전문가인 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이런 상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건희 씨, 이재용 씨가 너무 부럽잖아요?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타고나서 저렇게 살고 있나?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이뤄낸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러울 게 없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열 뿔의 힘과 일곱 머리의 지혜가 그 사업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크면 클수록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온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어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왜 성도들과는 싸우고 온 족속은 다스린다고 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싸워서 이깁니다. 결국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저~기 저~ 바다 밑에 깊이, 깊이 들어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부러워하는 거예요. 샘을 내는 거예요.
뭘 부러워하고 뭘 샘을 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런 육체적인 고난이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그가 수면 위에 떠서 신의 바람을 마음에 많이 받아들였으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물리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이걸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무엇을 경배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와 싸워서 이긴다.’
앞에 12장에 붉은 용과 여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절에서 붉은 용이 교회를 없애려다 못 없애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먹어 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모래 위에 섰을 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 전문가인 짐승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니,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까지도 동원하니 이보다 더 큰 모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대처하고 이겨나갑니까?
하여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나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내 마음에 쇄도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들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게 되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항합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일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될 때에, 이미 내가 그것을 붙들고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얼른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내 마음이 붙들고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물에 들어갔을 때에 힘을 다 빼고 죽은 자처럼 되면 떠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 것을 붙잡아서 가라앉던 그 마음이 뜨게 됩니다. 뜨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수면 위에 있던 하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떠요. 수면을 발로 밟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으로 붙잡아서 근심하려고 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놔버린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수면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뜻이 내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것들이 움직여지고 진행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일거양득인 게, 짐승 때려잡고 그리고 이 세상의 내 삶에 주어진 영역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일거삼득이네요. 나는 하나님 갖고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나옵니다.
목사도, 교황도, 목사님도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세상 것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당 건축이든 사람 많이 늘어나서 노회 가서 힘주면서 살고 싶든 그걸 전도라는 미명으로 다 바꾸죠.
전도가 가장 강렬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 그 누구의 머릿속에도 부흥이라는 숫자를 늘려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면 위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지, 부흥이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미국에 있던 신학교 하나가 와서 이상하게 교회 성장학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이론을 신학화해 버린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신학교 안에도 나타나고,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여기에는 따로 구분된 영역이 없어요. 성역이 따로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곳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총회장님에게도 들어가고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 있는 농사짓는 할머니라도 십자가 생활화하면, 열 뿔 달리고 일곱 머리 달린 짐승이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다에 가라앉게 하는 자입니다.
왜 가라앉습니까?
세상 것을 마음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걱정이 생긴다면 가라앉고 있는 것이라고 아세요. 근심이 생긴다면 가라앉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감사가 안 나온다. 가라앉는 거예요.
수면 위에 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수면에 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항상 기도합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다 수면 위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 안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영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첫째 적그리스도, 바다의 전문가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어느 곳에든지 침투해 들어오는, 성역이 존재하지 않게 침투해 들어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철저한 어린양 죽음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막고 이기고 승리하며, 수면 위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신바람을 안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